

전한국장애인총연맹 대표 시각장애 권인희權仁熙씨 장애인 관련 헌법학으로 서강대 법학박사학위 받아



▲ 권인희씨의 법학박사 학위 취득 축하연이 열리고 있다



▲ 권인희씨가 답례 인사를 하고 있다

17세에 실명하여 각고의 40여년을 살아오면서 30년 전 한국맹인침사협회를 만들고 시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총장·회장을 거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를 지낸 권인희權仁熙씨가 2011년 가을 학기에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전공의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는 8월 17일 서강대의 가을학기 졸업식에서 수여받고 다음날인 18일 11시 반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본관 3층 의원식당에서 학위취득 축하연을 열었다. 이 축하연은 한국

애인 생존권과 관련된 판례 검토

제4장 일본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법제 현황과 판례

제1절 일본 장애인 정책과 실태

제2절 일본 장애인 관련 법제도

제3절 일본에서의 장애인 생존권에 관한 판례검토

제5장 장애인의 생존관련 법제의 분석 및 개선 방안

제1절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실체적 검토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이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영미 그리고 독일에서조차 선행 연구가 있는 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연구자 본인도 그러한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를 진척해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컸음을 실토하였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번 연구작업은 헌법상의 장애인 생존권 문제에 관한 후행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점을 자평으로 밝히고 있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국회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서두의 축사를 하며 자신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로서 만nan을 극복하며 와신상담 끝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낸 권인희씨의 인간승리를 찬양하였다. 다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이 같은 장애인으로서 공감어린 축사를 하고 차흥봉·김성이 두 전보 건복지부장관이 내참하여 축사를, 그리고 장항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각급 장애인단체장들이 축사를 줄이었다. 서강대의 임지봉 지도교수가 직접 나와 학위논문이 통과되기까지의 어려웠던 경과와 함께 격려의 말을 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권인희씨 본인의 소회가 청취되었다.

보명譜名이 혁시赫時인 권인희씨는 좌운공파 문경公文景公(17世 진軫 좌의정)계 시조후 36세로 195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서 출생하였다. 사헌부 감찰을 지내 감찰공으로 불리는 휘 응추應鍾의 12대 종손이자 어머니 남양南陽 홍옥순洪玉順씨가 42세에야 초산을 한 무녀독남이었다. 그의 종고조從高祖 기호基鎬공이 통정通政대부로 의병장이던 터로 부친 오욱五旭공이 소시부터 독립운동을 하며 만주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하다 돌아와 50이 되도록 후사를 낳지 못하자 문중에서 감찰공의 13대종손을 입후立後하고자 회의를 거듭하던 중에 그가 태어나 큰 경사를 만났다 야단이었다. 유아기부터 신동 소리를 들으며 초등학교를 마쳤는데 종사에 치중하면서 외아들에게 더욱 엄격하며 어려서부터 한복을 해 입혀 선대의 묘제에 데리고 다니던 부친이 갑

자기 정감록鄭鑑錄의 도참圖識에 심취하여 중학교에 진학해 얼마 안된 그의 등교를 금하고 한학을 하게 하여 원제선元濟善이라는 한학자 문하에 들어가 사서삼경을 읽게 하였다. 그러면서 온갖 집안일을, 문중의 잔심부름까지 맡아 하던 중, 부친의 명으로 친족 집의 혼사에 가 일을 돌보아주다가 그곳 불량배와의 시비에 휘말려 타박상을 입은 바로 실명을 하게 되니 17세 때였다. 병원에서 3차의 망막 수술을 받으며 완전 실명이 되는 동안 취약하던 가산은 탕진이 되고 맹인으로서 13대 종손의 자격이 박탈되는가 하면 이에 승복치 않던 부친의 12대종손 자격까지 위협을 받는 바 되었다.

18세나던 1970년 4월 봄비를 맞으며 앞모보는 그는 부친의 손에 이끌려 마지막으로 서울의 종로에 있는 ‘공병우안과科 炳禹眼科’를 찾았다. 공병우 박사는 완전 상실된 그의 망막을 재생해줄 의술이 없는 대신 그에게 다른 눈을 주었다. 안과 의사로서의 명성 뿐 아니라 ‘공병우한글타자기’를 발명하여 당시의 타자기업체를 석권하던 공박사는 또 맹인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광나루 건너 천호동에 ‘맹인생활지도원’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 숙식 일체를 제공하며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들어가 공병우타자술을 익힌 그는 집중훈련 6개월 만에 1분에 600타를 치는 한국 최고의 실력을 터득했다. 그 손가락 끝이 10개의 눈동자 역할을 겸하게 된 것이었다.

반년의 생활 적응 훈련을 받은 그는 인천의 해광맹학교로 보내져 국비로 중등과정을 이수한 다음 1973년에는 서울 효

국문판 전산·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를 상시운영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입록·등재 신청을 받습니다

- ① 이 족보는 항상 살아서 움직이며 언제든지 추가 등재와 입록이 가능합니다. 이 족보의 주기誌記는 안동권씨인 각자의 작은 행장行狀 또는 약력略歷으로 운용되어 영원한 가족史家族史로 유전됩니다.
- ② 소정의 수단비, 즉 등재비와 함께 소정의 수단용지에 잘못되었거나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증보 신청하시면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됩니다.
- ③ 각자의 생애에서 발생하는 출생·사망·거주·결혼·이혼·졸업·학위취득·직업·지위·직위·경력 등이 주요 사안별 기준에 따라 등재되어 각자의 간추린 개인史個人史가 망라됩니다.
- ④ 수시로 수단을 받아 신규 입록하거나 기록을 보충·변경 등을 하는 경우 연도말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인터넷상에 업데이트된 원판이 올라가 운용됩니다.
- ⑤ 이처럼 추록·보완·변경된 내용은 나중에 대동보나 각종 파보를 발간할 때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옵니다.

● 안동권씨 각급 문중별 파보派譜·계보系譜와 가승家乘도 발간해드립니다

- ① 안동권씨 한글판한자병기전산대동세보는 그 전산판이 완비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② 이 원판에 변동사항과 새로운 입록사항을 추가하여 뽑아내면 해당 계파의 파보나 계보 또는 가승이 됩니다.
- ③ 이렇게 계파보를 제작·발간할 경우 전체 전산원판에의 입록·등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전산등록 수단비를 받지 않습니다.
- ④ 파보 등을 발간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소譜所를 설치·운영할 것이 없이 모든 일이 종보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므로 보소비용이 절감됩니다.